



야마하 가이드

드럼 세트 선택



이 가이드를 활용하여 연주 스타일과 필요에 맞는 드럼 세트와 드럼 하드웨어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입문자 세트든, 대형 무대에 적합한 고급 어쿠스틱 또는 전자 키트든, 이 가이드는 여러분의 예산과 타악기 연주 수준에 맞는 올바른 장비의 조합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가이드로 드럼과 심벌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요소와 드럼을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드럼 세트를 선택하기 전에 드럼 세트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를 익혀야 합니다. 여기에는 스네어 드럼, 베이스 드럼, 한 개 이상의 마운트 탬 및 플로어 탬, 그리고 전체 드럼 세트를 완성하는 다른 두 가지 필수 요소인 심벌과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또한 어쿠스틱 드럼 볼륨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섹션, 마이크 대안 및 전자 드럼에 대한 섹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본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용어집을 참조하십시오.

즐겁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드럼 세트의 각 부분

드럼 부위별 명칭



상피(배터헤드): 드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헤드는 원형의 합성 소재 막으로 주로 마일러가 사용되며, 셀 둘레로 당겨 설치해 장력의 정도를 다양하게 조절합니다.

후프: 드럼 후프는 보통 주조 또는 단조 처리된 금속으로 만들지만 일부 드러머는 목재 후프를 선호합니다. 후프는 장력을 가하기 위해 헤드를 셀에 고정하도록 만들어진 플랜지로 구성됩니다.

텐션 로드: 후프의 구멍에 넣고 이를 러그에 끼워 장착해 장력을 알맞게 유지합니다.

러그: 러그는 일반적으로 금속으로 만들며 셀에 장착해 텐션 로드를 고정하는 용도입니다. 러그 설계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까지 다양할 수 있으며, 종종 지지 스프링과 기타 기능을 포함합니다.

셀: 셀은 드럼의 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셀은 목재로 만들지만 유리섬유, 아크릴 및 이국적인 소재의 셀도 볼 수 있습니다.

벤트: 벤트는 드럼헤드를 칠 때 헤드에서 기압을 배출할 수 있는 구멍이며, 모든 드럼에 벤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밀피(레조넌트 헤드): 드럼의 레조넌트 헤드는 어택과 톤을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레조넌트 헤드는 상피(배터 헤드)보다 얇습니다.

하피 후프: 하피 후프는 밀피를 셀에 고정합니다. 스네어 드럼은 하피 후프에 스네어를 걸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드럼 세트 선택

큰 키트를 찾고 있다면, 5피스, 6피스 또는 그 이상의 구성을 고려해 보십시오. 구성 수가 많아지면 탬이 더 추가되어 톤이 더 다양해집니다. 이러한 대형 키트는 헤비 록, 퓨전, 컨템포러리 및 메탈 스타일, 대형 교회 찬양팀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최신 드럼 마이크 기술을 사용하면 더 이상 드럼 세트의 “연주 시” 음량이 클 필요가 없으며, 사운드 데스크를 통해 볼륨과 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드럼 세트가 다음 두 가지 구성으로 제공됩니다.

- 스탠다드
- 퓨전

각 구성을 구분하는 요소는 드럼의 직경입니다.

퓨전: 마운트 탬은 일반적으로 10인치와 12인치, 플로어 탬(서스펜드 또는 스탠딩)은 14인치, 베이스 드럼은 보통 22인치로 구성되는 드럼 세트입니다. 퓨전 세트의 작은 직경은 또렷한 톤과 선명한 소리가 장점입니다.

스탠다드: 마운트 탐은 12인치와 13인치, 플로어 탐은 16인치, 베이스 드럼은 22인치로 구성되는 키트입니다. 스탠다드 세트의 장점은 큰 탐으로 더 큰 볼륨과 두터운 톤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적의 세트를 선택하는 것은 주관적인 과정이며, 각 구성마다 이점이 있습니다.



야마하 투어 커스텀 – 일반적인 5피스 키트

대부분의 경우 드럼 세트에 필요한 하드웨어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흔히 셸 팩이라고 하며, 이미 하드웨어가 있는 경우 셸 팩을 구입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셸 팩에는 대부분 베이스 드럼과 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네어 드럼, 심벌, 심벌 스탠드 및 페달은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드러머는 스네어 드럼, 페달, 심벌 및 기타 자신이 사용하는 하드웨어에 대한 구체적인 취향이 있으므로 셸 팩이 인기가 있습니다.

이미 드럼 세트가 있지만 확장시키고 싶은 경우에는 애드온 드럼을 한 번에 하나씩 구매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애드온 팩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풀 키트를 찾고 있다면, 자신의 필요에 맞는 드럼 세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전부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원하거나 필요한 탐 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베이스 드럼과 스네어 드럼은 드럼 키트의 기본 요소이며, 탐은 노래를 한 부분에서 다음 부분으로 전환시키는 리드미컬한 프레이즈인 “필”에 가장 자주 사용됩니다. 사용되는 탐의 수는 주로 개인 취향에 따르지만 기본 키트에는 최소한 작은 탐 하나(보통 베이스 드럼에 장착)와 큰 탐 하나(종종 플로어 탐이라고 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초보 드러머인 경우 스타터 드럼 세트가 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가격의

키트에는 일반적으로 구입 즉시 연주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드럼, 심벌, 스탠드 및 하드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스타일에 적합한 드럼 세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연주 스타일에 맞는 키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럼 수와 크기가 작은 드럼 키트는 재즈, 정통 블루스 및 예배에 적합하며, 큰 드럼으로 구성된 드럼 세트는 록, 메탈 및 기타 격렬한 사운드에 더 적합합니다.

드럼 키트의 구성 요소

드럼 세트 구성에는 수십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다음 구성 요소를 기본으로 합니다.

킥 드럼(베이스 드럼): 키트에서 가장 음역대가 낮은 드럼. 일반적으로 한 곡의 기초 리듬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스네어 드럼: 킥 드럼과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는 속도감 있는 드럼입니다. 스네어 드럼은 리듬의 윤곽을 잡는 데 도움이 되며 음악의 강약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탐: 탐은 높은 것에서 낮은 것까지 다양한 피치로 음색을 제공하며 노래의 두 섹션을 연결하는 “필”을 연주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드럼 키트에는 탐을 1개, 2개, 3개 또는 그보다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심벌: 드럼 키트의 금속성 “소프라노” 음을 담당합니다. 기본 세트에는 라이드, 크래시, 하이햇이 포함됩니다.

하드웨어: 드럼 키트를 연주하려면 필요한 필수 장비입니다. 킥(베이스) 페달, 스네어 스탠드, 심벌 스탠드(하이햇 스탠드 포함), 탐 홀더 및 다리, 그리고 필요에 따라 기타 품목이 포함됩니다.

드럼 목재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드럼 제조에 사용되는 목재의 종류입니다. 드럼을 만드는 데에는 많은 종류의 목재가 사용되며, 모두 고유한 소리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드럼 셸 목재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톤: 소리가 좋아야 합니다.

넉넉한 공급: 너무 희귀하거나 너무 비싸서는 안 됩니다.

변형 용이성: 셸로 성형하기가 비교적 쉽고 장기간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다음 목재가 드럼 셸의 제작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메이플: 드럼 제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목재로, 따뜻하고 균형 잡힌 톤이 특징입니다.

팔카타: 비용이 적게 들지만 메이플과 소리가 비슷하고 마감하기 좋기 때문에 메이플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버치: 조밀하고 단단한 소재로, 메이플 또는 마호가니보다 더 단단하고 밝은 소리를 냅니다. 크고 밝은 톤으로 인해 버치는 레코딩에 사용하기에 탁월하며, 타음이 선명하게 구별됩니다. 버치는 고음과 저음이 강하고 중음역대가 약합니다.

마호가니: 저음과 중음역대가 크고 고음이 작습니다. 소리는 메이플보다 약간 더 따뜻하며 “빈티지” 느낌을 낸다고 합니다.

포플러: 메이플 또는 버치와 비슷한 밝은 소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저가의 제품입니다.

베이스우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메이플이나 버치의 품질 좋고 저렴한 대안입니다. 베이스우드는 결이 좋아 래커 마감이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라왕 목재: 흔히 “엄선된 견목”이라고 불리며 버치의 경제적인 버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크: 메이플과 유사한 톤을 지녔으며 보다 다공성이고 강하고 밝은 소리를 냅니다.

셸 구조

드럼 셸은 여러 겹의 목재로 만들어지며 이 겹겹의 판을 “플라이”라고 합니다. 플라이 수가 많으면 사운드가 더 밝고 기본 음이 더 높습니다. 플라이 수가 적으면 기본음이 일반적으로 더 두텁고 따뜻하며 낮습니다.

드럼 셸의 베어링 에지가 절단되는 각도도 톤의 차이를 만듭니다. 베어링 에지 각도가 날카로울수록 더 밝은 소리가 나고, 베어링 에지가 뭉툭하면 더 부드럽고 그윽한 소리가 납니다.

아크릴,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로 만든 합성 셸(보통 베이스 드럼 및 탐용)도 볼 수 있습니다. 금속 셸도 있지만 이는 거의 스네어에만 사용됩니다. 강철, 알루미늄, 구리 또는 청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드럼 셸 제작 기법 5가지



목재가 선택되면 다음 단계는 셸을 성형하는 것이며, 결과의 품질은 궁극적으로 다음 세 가지 주요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 *형성 기법*
- *두께*
- *베어링 엷지*

기본 셸 모양은 다음 5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생성됩니다.

- *플라이우드*
- *스태이브*
- *세그먼트드*
- *스팀 벤트*
- *솔리드*

플라이우드: 얇고 유연한 나무판 여러 겹을 원형 몰드 안에 접착하여 만드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장점: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대량 생산에 적합합니다.

단점: 덜 견고하고 접착제가 많이 들어가 음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태이브: 나무통 제작과 상당히 비슷하게, 여러 개의 작은 나무 패널을 세로로 이어 붙여 셸 형태를 만드는 공정입니다. 커스텀 드럼 제작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는 디자인입니다.

장점: 목재에 스트레스가 가지 않아 형태를 잘 유지합니다.

단점: 플라이 셸보다 비용이 많이 들며, 얇은 셸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세그먼트드: 바닥재를 까는 방식을 모방한 패턴으로 작은 나무 패널을 붙여 만듭니다.

장점: 스테이브 셀 공정과 유사합니다.

단점: 스테이브 셀보다 패널이 더 많이 필요하므로 더 어려워 그보다 인기가 덜합니다.

스팀 벤트: 나무판 한 개에 증기를 씌어 연하게 만든 다음 셀 모양으로 말아서 만듭니다.

장점: 접착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드러머에 따르면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방법보다 어쿠스틱 사운드가 더 좋습니다.

단점: 둥근 형태를 유지하기 어렵고, 아주 얇거나 두껍게 만들기 어려우며, 흔하지 않습니다.

슬리드: 통나무를 그대로 조각하여 통으로 만든 것입니다. 현대적인 방식으로 제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모든 드럼이 이렇게 단순하지만 노동 집약적인 방법을 여러 가지로 변형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장점: 연결 부위와 접착제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가장 좋다고 여겨집니다. 목재가 자연 상태이기 때문에 모양에 스트레스가 가지 않습니다.

단점: 깎아 내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얇은 셀로 실현하기 어려우며, 적절한 목재가 많지 않고, 모든 방법 중 가장 적게 사용됩니다.

셀 성형 방식과 함께 “두께”도 고려해야 합니다. 두께에 맞춰 깎아 내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지만 작업 결과는 간단합니다.

- 두꺼운 셀은 기본음이 높고 더 밝은 음색을 냅니다.
- 얇은 셀은 기본음이 낮고 음색이 더 따뜻합니다.

셀 크기

대부분의 연주자의 경우, 대개 다음 두 가지 옵션으로 대부분의 요구가 충족됩니다.

스탠다드 사이즈 키트: 더 큰 셀을 사용하고 묵직한 연주 스타일에 더 적합합니다.

퓨전 사이즈 키트: 더 작은 셀을 사용하고 경쾌한 연주 스타일에 적합합니다.

퓨전 키트에 비해 스탠다드 키트는 기본 피치가 낮고, 느슨한 헤드로 스틱 반응이 느리며, 볼륨이 더 크고, 드럼 크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킥: 22" x 14"
- 랙 탐: 12" x 8" 및 13" x 9"
- 플로어 탐: 16" x 16"
- 스네어: 14" x 6"

마감

드럼은 마감이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커버링” 마감은 비닐 랩으로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가격의 마감으로 선택할 수 있는 패턴과 모양이 다양합니다. 커버링 마감은 뛰어난 내구성을 제공하며 자연스러운 마감보다 굵힘과 흠집에 강합니다. 투명 래커 마감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나뭇결이 돋보이도록 합니다.

외부 코팅은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추가됩니다.

스테인닝: 목재에 동유를 문질러 코팅하는 간단한 방식입니다.

래커: 레이어링 및 버핑이 들어갈 수 있는 보다 복잡한 공정입니다.

래핑: 셀을 얇은 비닐 시트로 감싸는 방식입니다. 다른 두 가지 방법과 비교하여 래핑에는 세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1. 극히 다양한 디자인 패턴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저렴하고 생산하기 쉽습니다.
2. 최고의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3. 굵힘에 강합니다.

그러나 래핑 방식에 대한 흔한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톤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께가 훨씬 두꺼운 저렴하거나 오래된 드럼이라면 래핑이 실제로 그러한 영향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최신 기술의 초박형 비닐을 사용하므로 톤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최신 고급 셀 팩을 살펴볼 때 이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네어 드럼

스네어 부위별 명칭



스네어: 밀피 양끝에 거는 코일 와이어로 스네어 드럼의 독특한 소리를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스네어 스트레이너: 레버 및 스레드 장치로, 드러머가 이를 이용해 스네어 장력을 조절하고, 탐 소리를 더 내기 위해 헤드에서 스네어를 떼어낼 수 있습니다.

스네어 후프: 스네어를 고정하는 끈이나 스트랩이 통과할 수 있도록 측면에 구멍이 있는 특수 후프.

스네어 드럼의 차르륵 거리는 소리는 어떤 악기 조합에서든 뚜렷하게 들리고 액센트를 더하며, 솔로 연주자와 서로 호응합니다. 이 드럼의 독특한 사운드는 셀에 장착된 스트레이너라는 장치를 사용하여 드럼의 얇은 밀피에 고정한 금속 와이어 스프링, 즉 스네어에서 나옵니다. 스네어를 풀면 하이 탐 또는 텀벌 같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스네어 드럼은 전통적으로 금속이나 목재로 제작됩니다. 강철, 황동, 알루미늄 및 기타 합금으로 제작된 금속 스네어 드럼은 매우 밝고 날카로운 톤을 내며 목재 스네어는 더 따뜻하고 그윽한 소리를 냅니다. 스네어 드럼은 일반적으로 직경이 14인치이며 깊이는 3-1/2인치에서 8인치 사이입니다.

피콜로, 소프라노, 소프라니노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여러 가지 스네어 드럼이 있는데, 이는 순서대로 표준 스네어 드럼보다 크기가 작아지고 피치가 높아지는 특수 스네어입니다. 팝콘 스네어는 6" x 10" 특수 스네어 드럼으로 푹푹 튀는 고음의 톤이

특징입니다.

드럼 헤드

두껍거나, 얇거나, 싱글, 또는 멀티플라이로, 코팅 재질 또는 투명한 재질로, 중심부 또는 에지를 강화한 형태 등 드럼 헤드 유형이 너무 많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장르가 중간 수준 무게의 다목적용 드럼 헤드로 충분합니다. 터치가 강해 볼륨이 큰 드러머의 경우, 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더블플라이 방식의 드럼 헤드라면 압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오버톤 조정 및 링 제어의 경우, 중심부나 에지에 사운드 컨트롤 처리된 헤드가 도움이 됩니다.

드럼 상단에 사용되는 헤드는 배터헤드라고 하며, 레조넌트 헤드는 드럼 하단에 사용되어 울림과 서스테인을 더합니다. 일부 드럼에는 극도의 어택과 밝은 톤을 위해 상피 또는 배터헤드만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드럼 헤드는 마일러(Mylar)라는 얇은 플라스틱으로 제조됩니다. 마일러 드럼 헤드는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되며 흰색 코팅을 분무 도포하거나 하지 않은 상태로 제공됩니다. 코팅된 드럼 헤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스타일입니다. 링과 프로젝션이 약간 적으며 보다 은은한 사운드로 인해 여전히 많은 재즈 연주자와 찬양팀 반주자가 선호합니다. 이러한 코팅 헤드는 투명 헤드보다 더 따뜻한 사운드를 지니며 종종 스튜디오 작업에 사용됩니다.

드럼 헤드는 다양한 두께와 싱글 또는 더블 플라이로 제공되며, 각 유형은 현저하게 다른 소리를 냅니다.

두꺼운 헤드: 이 헤드는 고음역대에 가장 잘 맞는 소리를 내며, 얇은 헤드보다 어택이 더 뚜렷하고 디케이가 빠르며, 또한 내구성이 더 뛰어나고 찌그러짐에 강합니다.

2겹 헤드: 보다 억제된 톤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플라이 사이에 다른 소재를 넣어 더 또렷하고 정제된 톤을 냅니다.

핀스트라이프 헤드: 플라이 사이에 에폭시 링을 넣고 밀봉해 오버톤을 제한하고 “웁”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Evans Hydraulics 헤드는 매우 드라이한 톤의 극도로 정제된 소리를 위해 플라이 사이에 오일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얇은 헤드: 많은 재즈 연주자들은 얇은 헤드의 생생한 소리와 빠른 반응을 선호하는 반면, 록 연주자들은 일반적으로 2겹 헤드의 두터운 소리를 좋아합니다.

어떤 종류의 헤드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지침은 없습니다. 드러머는 다양한 헤드가 소리를 내는 방식에 대한 반응이 저마다 다르므로 자신이 듣기에 좋은 것을 찾으면 됩니다.

스네어 헤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스네어 하피 또는 스네어 사이드 헤드는 헤드에 거는 금속 스네어 와이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매우 얇은 헤드로 만들어졌습니다.

스네어 드럼 상피의 경우, 대부분의 드러머가 스네어 드럼의 생생한 반응을 약간 약화시켜 주는 코팅 헤드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브러시로 연주할 경우 코팅의 결이 고와야 합니다.

드럼 키트에서 과도한 링과 울림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기에는 베이스 드럼 배터헤드 위에 펠트 스트립 사용하기, 전면 베이스 드럼헤드에 구멍 내기, 배터헤드 내부에 쿠션 넣기 또는 특수 머플링 베이스 드럼헤드 사용하기가 포함됩니다. 여러 수준의 머플링을 제공하는 베이스 드럼헤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울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드럼 사운드 댄프닝 링, 패치 및 패드가 있으며, 다수가 특정 드럼에 맞는 크기로 특정 요구에 맞게 억제 효과를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림/후프

후프 디자인은 흔히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1. 목재
2. 주조
3. 플랜지

플랜지 후프에 비해 목재 및 주조 금속 후프는 더 강하고 무거우며 드럼헤드의 바깥쪽 에지에서 더 단단한 그립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더 명확한 소리를 내며 서스테인이 적고 림샷 시 프로젝션이 더 뛰어나며 튜닝 안정성이 더 좋습니다.

반면에 플랜지 후프는 훨씬 더 가볍고 드럼헤드의 바깥쪽 에지와 접촉을 최소화하여 더 많은 오버톤과 서스테인을 제공합니다.

플랜지 후프의 흔한 변형된 형태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싱글 및 더블 플랜지: 림의 상단 가장자리가 날카로워 드럼스틱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트리플 플랜지: 상단 에지에서 때로는 안쪽으로, 때로는 바깥쪽으로 한 번 더 구부러 표면을 둥글게 만들어 드럼스틱 사용을 더 편하게 해 줍니다.

최근에는 “S-후프”라고 알려진 새로운 하이브리드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주조의 밀도와 강도를 가진 트리플 플랜지 후프이며, 상단 플랜지가 더 넓어 표면이 드럼스틱으로 연주하기에 더 좋습니다.

심벌

심벌은 메탈릭 “소프라노” 계열의 톤을 제공하여 드럼의 특성을 보완합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 가지 심벌입니다.

라이드: 킥 및 스네어와 함께 곡에서 리듬의 윤곽을 잡아 주는 중간 무게의 심벌입니다. 라이드 심벌은 일반적으로 큰 소리를 너무 많이 내지 않고 반복되는 타격을 견딜 수 있습니다.

크래시: 가장자리를 칠 때 “캉”하는 요란한 소리를 내는 심벌로 얇고 직경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크래시 심벌 오버톤은 보통 빠르게 사라지므로 곡의 나머지 부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하이햇: 특수한 스탠드 위에 2개의 심벌을 하나는 똑바로, 하나는 그 위에 뒤집어 올려 놓은 것입니다. 하이햇 심벌은 매우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스탠드의 페달을 밟아서 “닫고” 연주하거나 발을 떼고 “열어서” 연주할 수 있습니다. 심벌을 치지 않고 페달을 밟기만 해도 “칙” 소리가 납니다.

심벌은 모든 드럼 세트의 필수 구성 요소이며, 대부분의 드럼 키트에는 심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주에 적합하고 선택한 세트를 보완하는 것을 찾고 싶을 것입니다.

다양한 역할을 맡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심벌이 만들어집니다. 주요 유형의 심벌은 라이드, 크래시, 하이햇이지만 스플래시와 차이나 심벌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운드, 색상, 모양을 제공하는 다양한 이펙트 심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스트 심벌은 가공되지 않은 용융 금속을 모래 주형에 부어 만듭니다. 그런 다음, 주물을 가열하고, 말고, 성형하고, 망치질하여 선반 가공합니다. 이 긴 과정을 통해 완전하고 복잡한 소리를 지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심벌이 만들어집니다. 각 캐스트 심벌은 저마다 고유한 독특한 음향적 특성을 갖습니다.

시트 심벌은 두께와 구성이 균일한 대형 금속 시트에서 절단한 것입니다. 시트 심벌은 동일한 모델 간에는 소리가 균일하며, 일반적으로 캐스트 심벌보다 저렴합니다.

심벌 소리는 종종 개인의 취향에 따르며, 많은 재즈 연주자들은 더 어둡고 복잡한 심벌 사운드를 선호하는 반면, 록 드러머는 일반적으로 여러 악기 사이를 뚫고 나오는 더 밝고 큰 사운드를 선호합니다. 여러 심벌 제조업체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자신과 자신의 사운드에 적합한 심벌을 찾기 위해 가능한 한 다양하게 시도해 보십시오.

드럼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전체 키트를 구성하는 또 다른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필수 드럼 하드웨어에는 베이스 드럼 페달, 스네어 스탠드, 하이햇 스탠드, 그리고 심벌 스탠드가 포함됩니다.



[야마하 HW-680W 하드웨어 키트](#)

베이스 드럼 페달

선택할 수 있는 베이스 드럼 페달은 다양합니다. 간단하고 저렴한 싱글 페달 모델부터 록, 메탈 및 퓨전 드러머가 선호하는 정교한 더블 페달까지 다양합니다. 싱글 베이스 드럼용 더블 비터가 있는 페달, 듀얼 베이스 드럼 키트용 싱글 비터가 있는 더블 페달, 그 외 수십 개의 다른 구성이 있습니다.



[야마하 FP-9500C 및 DFP-9500C](#)

드럼 스론(의자)

대부분의 드럼 세트에는 드럼 스론(의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드럼 스론 이외의 다른 의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드럼 스론은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소형이며,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분해되고, 편안한 연주 경험을 위해 패드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설계된 드럼 스론은 뛰어난 인체공학적 특성 덕분에 연주를 더 잘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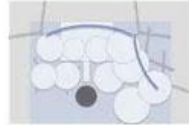


[야마하 DS-840 및 DS-950](#)

드럼 및 심벌 스탠드 및 랙

거의 모든 드럼, 퍼커션 또는 심벌을 장착할 수 있는 스탠드가 있습니다. 최상의 드럼, 퍼커션 또는 심벌 스탠드를 선택하면 드럼 키트의 구성, 구성 요소 및 예산이 결정됩니다.

스탠드에 드럼과 심벌을 장착하는 대안이 있으며, 이는 프레임 같은 구조물로 드럼 랙이라고 합니다. 랙은 최소한의 바닥 면적 위에 여러 개의 탬과 심벌을 장착할 수 있는 컴팩트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Hexsax II가 없는 드럼
키트 크기
■ Hexsax II가 포함된
드럼 키트 크기



■ Hexsax II가 없는 드럼
키트 크기
■ Hexsax II가 포함된
드럼 키트 크기

[야마하 Hexsax II](#)

드럼스틱 및 브러시

드럼스틱은 다양한 연주 및 음악 스타일에 맞게 여러 가지의 크기와 스타일로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더 큰 볼륨이 필요한 경우 **2B**와 같은 무거운 스틱을 사용하고, 적은 볼륨이 필요한 스타일에는 **7A**와 같은 가벼운 스틱을 사용합니다. 다양한 스틱을 사용해 보며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팁: 연습할 때는 공연할 때보다 더 무거운 스틱을 사용하여 근력과 체력을 키우십시오.

드럼스틱 제조 시 사용되는 할당 번호인 **5A**, **5B**, **2B**, **3S** 및 **7A**는 스틱의 크기 및 용도를 기반으로 하며, 숫자 부분은 스틱의 둘레를 나타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둘레가 커지고, 숫자가 클수록 둘레가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7A** 스틱은 둘레가 **5A**보다 작고, **5A**는 **2B**보다 가느다랄습니다. **3S**는 예외로, 숫자는 **2B**보다 크지만 둘레가 더 큼니다.

문자 명칭인 **“S”**는 **“Street(거리)”**을 의미하며, 마칭 밴드와 같이 거리에서 연주하는 경우를 위해 설계된 대형 스틱입니다. **“B”** 스틱은 교향악이나 관현악 같은 **“합주”** 시에 사용됩니다. **2B** 시리즈는 드럼 강사들이 꾸준히 입문자 스틱으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A”**는 오케스트라 드럼스틱을 말합니다. 둘레가 **“B”** 시리즈 스틱에 비해 작으며 록과 재즈 연주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스틱 팁은 목재 또는 나일론으로 만듭니다. 목재 팁은 더 부드럽고 따뜻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나일론 팁은 내구성을 높이고 화려하고 또렷한 심벌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보다 부드러운 연주가 필요한 경우 스틱 대신 일반적으로 브러시를 사용합니다. 브러시는 다양한 크기, 모양 및 재질로 제공되며, 여기에는 텔레스코핑 및 비텔레스코핑, 금속 강모, 플라스틱 강모, 루프 엔드, 볼 엔드와 목재, 고무, 알루미늄 핸들 등의 종류가 포함됩니다.

번들 스틱 또는 **“로드”**는 다양한 두께의 막대(다월)로 만든 것으로 스틱과 브러시 사이의 사운드를 냅니다. 번들 스틱은 볼륨이 작은 연주와 연습에 이상적이며, 드럼 볼륨을 줄이려는 중소 규모의 예배당에 이상적입니다.

어쿠스틱 드럼 볼륨 줄이기

메시 드럼헤드: 일반 드럼헤드를 메시 헤드로 교체하면 드럼의 볼륨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더 조용한 어쿠스틱 드럼이 필요할 때 좋은 솔루션입니다.

메시 드럼헤드는 드럼 볼륨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과 비교해 더 나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메시 헤드는 현실적인 느낌을 구현하며, 원하는 스틱 바운스의 양에 따라 더 껍 조이거나 느슨하게 조울할 수 있습니다. 메시 헤드는 또한 레조넌트 헤드의 공명을 살려 놓으면 톤이 약간 달라집니다. 메시 드럼헤드의 단점은 설치 및 제거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팁: 트리거를 메시 드럼헤드에 추가하면 어쿠스틱 키트를 전자 키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드럼 뮤트: 드럼 볼륨을 빠르고 쉽게 줄이는 도구입니다. 드럼헤드 위에 놓는 부드러운 고무 패드로, 최대 볼륨으로 연주하고 싶을 때에는 바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드럼 뮤트는 심벌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면 심벌 볼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드럼 뮤트의 단점은 실제 드럼을 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지 않으며, 스틱 리바운드가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스틱 리바운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주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강도와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볼륨 심벌: 저볼륨 심벌은 볼륨을 극적으로 줄입니다. 이러한 심벌은 일반 심벌에 비해 약 80%의 사운드 감소를 보입니다. 중요한 점은, 저볼륨 심벌이 그럼에도 표준 심벌과 같은 느낌과 반응을 보이며 드럼 뮤트 또는 타월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심벌에 있는 수백 개의 작은 구멍이 볼륨을 줄이면서도 현실적인 느낌을 줍니다.

드럼스틱: 더 얇은 드럼스틱으로 바꾸면 일부 드럼과 심벌 볼륨이 즉시 감소합니다. 드럼스틱이 얇을수록 힘이 덜 가해지므로 드럼 볼륨이 낮아집니다.

드럼 볼륨을 더 줄이려면, 드럼스틱보다 훨씬 더 조용한 로드스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로드스틱은 폼 센터가 있으며 나무로 된 다월로 둘러싸여 있지만 드럼스틱과는 다른 사운드를 냅니다. 로드는 여전히 좋은 톤과 리바운드를 제공하면서도 전반적인 드럼 볼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브러시는 볼륨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스틱과는 훨씬 다른 느낌을 줍니다. 브러시는 리바운드가 거의 없지만 매우 조용합니다. 터치감이 다르기 때문에 브러시를 사용할 때는 주법을 달리 해야 합니다. 리트랙터블 브러시는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스타일로, 브러시를 핸들로 집어넣거나, 완전히 꺼내거나, 반만 꺼내어 더 많은 리바운드를 주며 연주할 수 있습니다. 리트랙터블 브러시는 접은 상태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부러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드럼스틱과 마찬가지로 베이스 드럼 비터는 드럼 볼륨 레벨에 영향을 미칩니다. 플라스틱,

고무, 금속 또는 목재와 같은 하드 비터를 사용하면 더 날카롭고 큰 베이스 드럼 사운드가 생성되며, 폭신한 비터는 베이스 드럼 볼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작 컨트롤: 장비 변경뿐만 아니라 키트를 연주하는 방식이 드럼 볼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수한 동작 컨트롤은 전체 볼륨을 제어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연주 기법과 표현법을 개선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각 드럼과 심벌을 치는 세기를 잘 컨트롤하는 것이 더 좋은 드러머입니다. 폭발적인 액센트는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더 조용한 부분에서는 청중을 끌어들이 수 있습니다. 또한 연주 시 팔다리의 강약을 일부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비트에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전자드럼을 더 조용하게 만들기: 전자드럼의 볼륨을 줄여야 하는 경우, 특히 좁은 공간에서 드럼을 칠 때를 위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 키트 아래에 두꺼운 폼 바닥 타일을 놓으면 바닥을 통과하는 드럼 소음이 크게 줄어듭니다.
- 더 얇은 스틱을 사용하여 드럼 키트 패드의 스틱 소음을 줄이십시오.
- 베이스 드럼은 과도한 소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폭신한 베이스 드럼 비터를 사용하거나, 베이스 드럼 패드 주위에 두꺼운 타월을 테이프로 붙이십시오. 베이스 드럼은 타월을 덧대어도 여전히 소리가 나지만 소음이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야마하 사일런트 킥 페달 [KU100](#)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야마하 KU100 사일런트 킥 페달](#)

- 키트(심벌 스탠드, 스네어 스탠드 또는 하이햇 스탠드)와 함께 일반 드럼 스탠드를 사용하는 경우, 발을 최대한 넓게 벌리면 바닥으로 직접 들어가는 소리의 양이 줄어듭니다.
- 킥 드럼, 하이햇 또는 드럼 세트 내 다른 부분을 두드리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방법을 익히십시오.

DIY 드럼 댐핑

제조된 용품이 아닌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으로 드럼 볼륨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드럼과 심벌 위에 타월을 얹어 두면 전반적인 드럼 소음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타월이 두꺼울수록 볼륨이 줄어들지만 스틱 리바운드도 많이 사라집니다.

- 베이스 드럼 안에 두꺼운 담요, 베개 또는 타월을 넣습니다. 넣은 양이 많고 두꺼울수록 베이스 드럼 볼륨이 더 줄어듭니다.
- 베어링 에지와 헤드 사이, 드럼헤드 아래에 침대 커버를 놓습니다. 드럼헤드를 제거하고 낡은 침대 커버를 자른 다음 침대 커버로 드럼을 덮고 드럼헤드를 다시 씌웁니다.
- 레조넌트 드럼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제거하면 드럼 볼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후프를 다시 부착하여 베어링 에지를 보호하십시오. 오래된 드럼헤드를 사용하십시오. 헤드에 큰 구멍을 낸 다음(가장자리 1~2 인치 남겨두기) 레조넌트 드럼헤드를 다시 설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베어링 에지가 보호됩니다.
- 드럼헤드를 거꾸로 설치합니다. 오래된 드럼헤드를 사용하십시오. 이를 드럼 위에 거꾸로 올려 놓으면 드럼 볼륨이 다소 줄어듭니다.

어쿠스틱 드럼에 마이크를 연결하는 새로운 방법

야마하 [EAD10](#)은 독립형 어쿠스틱 드럼 모듈 시스템으로, 강력한 디지털 프로세서에 연결된 단일 마이크/트리거 구성 요소로 드러머가 어쿠스틱 드럼 세트의 소리를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레코딩, 리허설 및 공연 모두에 이상적인 [EAD10](#)은 값비싼 대형 드럼 마이크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고품질 드럼 성능과 경제성을 원하는 드러머와 사운드 엔지니어가 지속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EAD10](#)은 베이스 드럼에 쉽게 장착할 수 있는 중앙 모듈과 콤비네이션 마이크/트리거 센서 덕분에 음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예비당에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마이크는 전체 키트의 자연스럽고 역동적인 사운드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재현하며, 모듈은 플랜지, 페이즈 및 여러 종류의 리버브를 포함한 다양한 효과를 추가합니다.

하이브리드 드럼 확장을 위해 중앙 모듈에는 [야마하 DT50S](#) 스네어 트리거 및 [DTX 시리즈 패드](#)와 호환되는 스네어 트리거 입력과 2개의 3존 트리거 입력이 있습니다. 이 연결은 거의 800개의 저장된 사운드와 효과, 온보드 샘플러 및 50개의 프리셋 조합으로 무한한 창의적 가능성을 제공하며 200개를 더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EAD10의 무료 Rec 'N' Share iOS 앱](#)을 사용하면 드러머가 좋아하는 음악 위에 드럼 트랙을 녹음하는 동시에 자신의 연주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EAD10](#)은 모든 드럼과 이펙트가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어 PA 시스템에 빠르고 쉽게 연결되며, [EAD10](#)은 라이브 밴드의 사운드를 보다 통일감 있게 합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야마하 EAD10 스테레오 드럼 마이크 모듈](#)

전자드럼

전자드럼은 어쿠스틱 드럼과 비교할 때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찬양팀을 위한 솔루션으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전자드럼을 고려하고자 하는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볼륨 조절: 보통 전자드럼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드럼 키트 볼륨을 믹싱 콘솔로 제어하기 때문에 밴드의 다른 악기와 싱어를 압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어 방식은 찬양팀의 다른 요소와 균형을 잘 맞추기 훨씬 더 쉽습니다.

다양성: 5피스 어쿠스틱 드럼 세트로는 5가지 드럼 소리와 함께 구성된 심벌 소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드럼 세트에는 100가지 드럼 및 심벌 사운드가 바로 연주에 쓸 수 있도록 클래식 및 모던 키트로 정리되어 있으며 키트 조합 커스터마이징 등 훨씬 더 많은 옵션이 제공됩니다. 일부 전자드럼 키트에는 퍼커션, 합성 사운드, 심지어 피치 사운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러머가 노래할 경우 적합: 노련한 유지선도 노래와 드럼 연주를 동시에 하기는 어렵고, 드럼 키트 볼륨이 보컬 마이크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드러머가 노래하기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보컬 마이크 추가로 인해 드럼의 전체 사운드 레벨이 더 커집니다.

플라스틱 차음판 불필요: 차음판은 어쿠스틱 드럼의 볼륨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소리가 회중과 스테이지 마이크에서 최대한 멀리 반사되도록 적절히 배치해야 합니다. 실드는 크고 무겁고 설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보관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비용을 전자드럼 예산에 적용하십시오.

어디든 설치 가능: 어쿠스틱 드럼은 일반적으로 맨 뒤쪽에 위치하며, 볼륨 레벨을 제어하기 위해 청중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드럼을 뒤로 멀리 이동시키면 직접음에 비해 반사음이 늘어날 수 있어 전반적으로 둔탁해지는 효과가 자주 발생합니다. 전자드럼은 어디에 설치하든 동일하게 들립니다. 드럼 소리가 메인 하우스 스피커를 통해 직접 전달되고 사운드 엔지니어가 이를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분해 및 보관 용이성: 다른 일정을 위해 무대를 정리해야 할 경우, 전자드럼을 빠르게 분해하여 보관함, 캐비닛 또는 케이스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전자드럼은 개별 부품이 아닌 모듈식으로 분해하게 되어 있어 분해 과정이 더욱 빨라집니다.

마이크 불필요: 드럼의 출력이 메인 PA 시스템으로 직접 반영되어 사운드 엔지니어가 믹싱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나 앰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기능: 많은 전자드럼 세트에는 메트로놈, 디지털 뮤직 플레이어를 들고 연습할 수 있는 보조 오디오 입력, 업데이트용 USB 포트, 트레이너 모듈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아마하 [DTX720K 시리즈](#)는 약 152,000개의 노트 용량을 가진 시퀀서를 제공하지만, 커스텀 사운드를 샘플링하고 오디오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1,268개의 온보드 사운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야마하 DTX720K](#)



[야마하 DTX920K](#)

운반 용이성: 전자드럼은 전체 세트가 어떤 차량에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이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예배당에 두지 않아도 되며 연습이나 보관을 위해 드러머의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비용 효율성: 전자드럼과 어쿠스틱 드럼의 가격대는 두 가지 유형 모두 그리 다르지 않지만, 같은 비용으로 얻는 결과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드럼은 어쿠스틱 드럼 세트보다 더 많은 유연성과 사운드를 제공하고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키트” 소리, 사용 편의성, 작은 공간에서 볼륨을 제어하는 능력 측면에서, 전자드럼이 교회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드럼 세트는 사운드 시스템에 연결해야 소리가 들린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또한 드러머가 무대에서 자기 악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인이어 모니터 시스템이 연결된 헤드폰이나 드럼 스피커가 필요합니다.

드럼 세트 용어집

베이스 드럼: 풋 페달로 연주되는 대형 드럼. 때때로 “킥 드럼” 또는 “킥”으로 불립니다. 베이스 드럼은 여러 악기 소리의 중심을 잡는 데 사용되며 베이스와 상호 작용하여 곡의 기반을 구축합니다.

베이스 드럼 페달: 베이스 드럼을 연주하기 위해 밟는 페달. 레버와 텐션 스프링을 사용합니다.

베이스 드럼 비터: 베이스 드럼 페달에 맞는 금속 샤프트로, 펠트, 목재 또는 기타 재료로 만들어진 헤드가 있습니다.

베이스 페달 스프링: 페달을 밟은 후 페달을 뒤로 당기는 스프링.

베이스 드럼 스퍼: 베이스 드럼에 부착되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짧은 금속 다리.

배터 헤드: 드럼 윗부분에 장착해 연주자가 두드리는 드럼헤드.

베어링 에지: 드럼헤드와 만나는 드럼 셸의 가장자리.

벨: 심벌 중앙의 동글게 솟은 부분. 심벌 사운드의 액센트와 배리에이션을 주는 데 사용됩니다.

차이나 심벌: 중국에서 유래한 특수 효과 심벌. 일반적으로 스탠드에 얹어서 끼웁니다. 요란하고 웅장하며 백색 소음 같은 소리를 냅니다.

클로 후크: 베이스 드럼 후프 또는 림을 제자리에 고정하는 후크.

크래시 심벌: 강한 어택과 디케이가 짧은 심벌로 액센트와 크레센도를 줄 때 사용됩니다.

심벌 슬리브: 심벌이 심벌 스탠드 상단의 금속 로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 슬리브. 심벌 손상과 원하지 않는 금속끼리의 충돌음을 방지합니다.

심벌 스탠드(일자형 및/또는 붐 타입): 여기에 심벌을 고정시킵니다. 붐 스탠드에는 움직일 수 있는 암 부분(붐)이 달려 있어 스탠드 길이와 각도를 바꿀 수 있으므로 심벌을 더 융통성 있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더블 베이스 페달: 2개의 비터와 2개의 발판이 있는 베이스 드럼 페달. 모던 록과 퓨전 스타일에 사용됩니다. 드러머가 더블 베이스 드럼 효과를 위해 두 개의 비터로 단일 베이스 드럼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드럼 키: 텐션 로드를 조절하여 드럼헤드를 튜닝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 때때로 탠 암과 기타 하드웨어를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드럼 모듈: 샘플링되고 합성된 드럼 사운드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 컨트롤러.

드럼 랙: 일부 최신 드럼 세트에 사용되는 장비로, 개별 스탠드와 반대로 여러 개의 탐 드럼 및 심벌을 장착하는 장비입니다.

드럼 스킨(의자): 패드가 들어 있고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팔걸이가 없는 드러머용 의자.

드럼 트리거: 전자드럼 모듈에서 드럼 및 기타 사운드를 트리거하는 데 사용되는 드럼헤드 또는 림에 부착된 소형 센서.

드럼헤드: 드럼 셸에 맞는 헤드. 원래 송아지 가죽으로 제작되었으며, 대부분의 최신 헤드는 마일러(Mylar)로 제작됩니다. 배터헤드는 드럼의 상단에 끼우는 헤드이며, 레조넌트 헤드는 하단에 끼워 드럼 서스테인과 울림을 강화합니다.

드라이 사운드: 공간감이나 이펙트가 없거나 거의 들어가지 않은 드럼 사운드.

플로어 탐: 드럼 세트에서 가장 큰 탐으로, 보통 직경이 14인치에서 18인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리형 금속 다리를 사용하여 세워 두거나 탐 또는 심벌 스탠드에 걸 수 있습니다.

발판: 발로 밟는 베이스 페달 또는 하이햇 페달의 부분.

기본음: 드럼이 가장 개방적이고 공명이 큰 음색을 만들어내는 튜닝. 드럼 셸의 디자인에 크게 좌우됩니다.

하이햇 심벌: 하이햇 스탠드에 장착된 한 쌍의 심벌. 하이햇 심벌의 크기는 보통 12인치에서 15인치입니다.

하이햇 스탠드: 한 쌍의 하이햇 심벌을 장착하고 연주하는 데 사용되는 스탠드. 스탠드에 달린 풋 페달을 밟아 심벌을 닫고 발을 떼어 엽니다.

하이햇 클램프(또는 클러치): 하이햇 스탠드에서 상단 하이햇 심벌을 고정하는 부품입니다.

분리 마운트: 탐 홀더에서 탐을 분리하여 탐이 자유롭게 진동할 수 있게 해주는 탐 마운트.

러그: 드럼에 장착하는 브래킷으로 여기에 텐션 로드를 끼우고 림에 꽂아 드럼헤드를 고정합니다.

러그 너트(또는 스위블 너트): 텐션 로드를 끼우는 러그 내부의 리셉터클. 내부 스레드를 사용하여 텐션 로드를 조여 드럼을 튜닝할 수 있습니다.

마운트 탐: 세트 내에서 다양한 소리와 음색을 제공하는 탐은 필과 솔로를 연주하는 데 가장 자주 사용됩니다. 마운트 탐은 일반적으로 직경이 6인치~14인치 사이이고, 흔히 베이스 드럼 셸 위에 장착되지만, 일부 탐은 별도의 받침대에 올려 베이스 드럼 옆에 둡니다.

피콜로 스네어: 보통 깊이가 3~1/2인치인 고음의 특수 스네어 드럼.

라이드 에어리어: 라이드 심벌의 약간 휘어진 넓은 공간으로 균형 잡힌 일관된 톤을 내며 스틱 데피니션이 좋습니다.

라이드 심벌: 날카로운 어택, 짧은 디케이, 또렷한 스틱 데피니션을 보이는 심벌. 일반적으로 크기가 20인치 또는 22인치이지만 더 큰 사이즈도 있습니다. 라이드 심벌은 지속적인 “라이딩” 패턴을 만들어내며 흔히 반주 악기 솔로에 사용됩니다.

레조넌트 헤드: 탐, 스네어 및 베이스 드럼 전면부에 사용되는 하피입니다.

림: 드럼헤드를 제자리에 고정하고 튜닝을 위해 장력을 가할 수 있는 금속 테두리.

셸: 실질적인 드럼의 원통 부분으로 보통 목재로 만듭니다.

셸 팩: 일반적으로 림과 탐 홀더만 포함하는 최소 하드웨어로 판매되는 드럼 세트.

스네어 드럼: 메탈 또는 목재 셸로 되어 있고 밝고 날카로운 톤을 가진 드럼. 하단 드럼헤드에 장착된 스네어의 사운드에 의해 생성된 특징적인 버징 사운드를 지닙니다.

스네어: 스네어 드럼의 밑피(스네어 사이드) 헤드에 맞닿아 진동하는 코일 금속 가닥.

스네어 사이드 헤드: 스네어 드럼 하단에 부착된 얇은 드럼헤드.

스네어 스탠드: 스네어 드럼을 고정할 수 있는 조절식 바스켓이 있는 스탠드.

스네어 스트레이너(또는 쓰로우오프): 금속 스네어를 하단 스네어 사이드 드럼헤드에 고정시키는 장치. 스네어를 조이고 풀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소프라노 스네어: 일반적으로 직경이 12인치인 소형 특수 스네어 드럼.

스플래시 심벌: 디케이가 빠른 작고 얇은 크래시 심벌.

텐션 로드: 드럼을 튜닝하기 위해 러그 너트와 함께 사용되는 금속 로드.

탐: 일반적으로 탐 홀더를 사용해 베이스 드럼에 장착되는 다양한 크기의 드럼. 탐은 드럼 랙에 장착할 수도 있으며 서스펜디드 또는 행잉 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6인치보다 큰 탐은 받침대를 사용하며, 이 경우 드럼을 플로어 탐이라고 합니다.

탐 홀더: 베이스 드럼 셸에 하나 이상의 탐을 장착하는 데 사용하는 하드웨어.

트리거: 드럼헤드에 부착하고 외부 드럼 모듈에서 사운드를 트리거하는 소형 센서.

와셔: 텐션 로드의 헤드와 림 사이에 들어가는 금속 원반.

웻 사운드: 리버브 및/또는 딜레이와 같은 효과를 주어 공간감이 느껴지는 특성을 지닌 사운드.

윙 너트: 날개 모양 손잡이가 있는 너트로 심벌 스탠드 윗부분에 사용합니다.

문의처

야마하 드럼 라인업을 보려면 당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야마하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당사 문의처 페이지 www.yamahaworship.com을 방문하십시오. 어떤 문의든 환영합니다.